

“새만금 예산 삭감 안될말”

군산시의회, 정부에 ‘전북 죽이기 중단’ 강력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챔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도 떠넘기고 있으며, 여론 물리로 전라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챔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비용액 6.626억원 중 무려 78%인 5.147억원이나 삭감하였는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했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368억), △새만금신항만(1677억→1383억)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단지 동서도로 자전거도로 사업만 (16억4천만원) 그



대로 반영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비확적자를 재발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여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4번째로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례야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북

도와 새만금에 분골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이지 이번에 처리된 챔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는데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챔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씌우는 의도는 무엇이며 대회를 개최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한날 전라북도도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업까지 폄하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라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성토했으며 정부는 단지 챔버리 대회 개최 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를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2회 익산보물찾기 축제'가 보석산업·문화도시·안전관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산업·문화·안전’ 모두 잡아

익산보물찾기축제, 1만6000여명 참가... 외부 관광객 50% 유입

‘제2회 익산보물찾기 축제’가 보석산업·문화도시·안전관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내유일 보석산업 단지가 있는 익산시를 알리는 대표 산업결합형 문화콘텐츠축제로1일부터 3일까지 많은 인파에도 안전관리에 성공하며 보석문화도시의 위상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총1만6천여명이 축제에 참가했으며 작년에 이어 익산의 지역 참가자가 약 50%에 이르렀고, 20~30대의 청년들과 가족 단위가 많았다.

첫날 익산보석문화가터 선포식을 시작으로 AR보물찾기, RPG게임 백부더 1970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입소문을 타고 마지막날 인파가 몰리며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축제는 디지털기술과 축제를 결합한 게이미케이션 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게이미케이션 : 게임이 아닌 것을 게임처럼 생각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부여하여 게임처럼 만드는 것

메인 프로그램인 AR보물찾기로 첨단 기술을 도입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스텝프루어, 백부더1970, 게임존에서 축제를 즐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AR보물찾기와 RPG보석추리게임의 주인공은 첫날 대구와 서울, 경기도 광주 들쭉날쭉 대전 마지막날은 구미와 전남광주, 울산에서 온 관광객이 뿔뿔히 외지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전국 축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축제장 곳곳에서 핫딜샵과 플라마켓, VIP 라운딩 등으로 보석업체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무엇보다 참여되어 있던 귀금속보석공업단지를 ‘익산보석문화거리’로 새롭게 명명하고 선포식을 가져 향후 노후된 산업단지를 문화거리로 만드는 사업의 첫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익산=이재춘기자

“국가 예산 확보...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정헌을 익산시장,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도... 미래 동력 2025년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정헌을 익산시장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시장은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해서 일궈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부족한 현안 사업들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간 인만큼 전 부서가 예산 편성을 위한 필수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추진하길

바란다”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준비해온 일들이 무산된다는 점을 감안해 필수 사업 누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지역 정치권이 묵이 집중돼 있는 상황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시장은 “지역 증액을 위한 정치권 에너지가 새만금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돼 다른 때보다 여건이 좋지 않다”며 “쉽지 않겠지만 국정 과제와 도정 방침을 잘 살피 12월 최종 확정

전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그동안 해온 사업들에만 안주하지 말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해야 할 것”이라며 “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시장은 가을을 맞아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서동축제, 부서별 행정지원계획 보고회

익산시가 2023 익산서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하진 부시장 주재로 익산서동축제 추진부서별 행정지원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익산서동축제의 전반적인 추진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축제 홍보와 안전관리, 익산·경주 시민교류, 카페마시·환경 민천 노점상 관리, 교통 관리, 방역소독·의료지원센터 운영, 서동공원 정비 등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지난 축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접근성과 편의시설 문제 개선을 위해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 미륵사지와 보석박물관,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을 운영하고, 셔틀버스 증차, 축제장 내 화장실·쉼터 등 기본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진 익산시 부시장은 “익산서동축제의 정체성에 걸맞게 지역 특색을 살린 불거리, 막거리, 즐길거리를 보완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안전하

고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익산서동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슬로건으로 9월 15~17일 3일간 익산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역사성을 강조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백제 유등 전시를 통해 1,4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떠나 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영미 익산시의원 발의 홀로그램조례 상임위 통과

익산시가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영등동, 삼성동 삼기면)이 발의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의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영미 의원은 “홀로그램은 전 세계 시장에서 연평균 6.8%씩 급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홀로그램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홀로그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 수도사업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상·하수도 분야는 격년제 평가로 이뤄지며 올해는 상수도 분야 평가가 시행됐으며 경영평가는 총 2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방법은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18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리더십 경영혁신, 재무관리 세부지표에서 선제·창의적인 정책추진과 효율적 재무관리를 우수한 평가를 거뒀다.

특히,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4개월간 감면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호우 피해지역 신속복구·예방사업 추진

군산시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및 복구사업을 추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 상습침수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호우피해복구 및 예방사업 12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원, 관로 공사 및 침수지역 해소 사업 20억원 등 총 4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 임피면 월하리 등 상습 침수구역 현장 조사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40여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 37억원을 투입해 나운사거리 등 시내 일원의 우수관로 준설 및 대형 빗물받이 설치(250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29개소) 추진을 완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급변 추가 사업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